



시민권

본 페이지의 내용

- [시민권 수여식](#)
- [시민권 신청](#)

시민권 수여식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이미 승인된 신청자들이 계속해서 호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화상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시민권 수여식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여식에는 식 진행 담당 공무원과 보통 한 명의 시민권 취득자, 혹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동거인들이 참석해서 진행되는데, 적법하며 전통적인 대면 수여식보다 짧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식에서는 신원 확인을 비롯한 조치가 계속 포함될 것입니다.

다수의 정부 소관 부문에서 코로나 19 제한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현장 시민권 수여식도 소규모로 다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서는 해당 주나 테리토리가 정한 소규모 모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지키고 코로나 안전 수칙 (COVIDSafe)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개인은 직접 연락을 받고 온라인 시민권 수여식이나 소규모 현장 수여식에 초대됩니다. 카운슬이나 시민권부에 시민권 수여식에 대해 따로 문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취득자는 시민권 승인을 통지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수여식에 참석해서 충성 서약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기간에는 12개월 이내에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민권 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의 신청 접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미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의 처리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6일부터는 서호주에서만 현장 시민권 면접 및 시민권 시험이 재개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시민권 면접이나 시험에 참석하도록 연락과 초대를 받습니다. 시민권부에 시민권 면접이나 시험에 대해 따로 문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안전한 시기가 되면 직접 면접과 시민권 시험을 재개할 것입니다.